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하랑 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제 3845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10일)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균형발전 제도화 시동

시의회 공동 토론회서 영향평가·인지예산제 도입 논의

특별시, 전문가 의견 토대로 조례안 검토·정책 반영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7일 국립목포대에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통합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집행까지 행정과 재정 전반에 균형발전 관점을 반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통합특별시의원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선 '지역 내 균형성장을 위한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살펴봤다. 이어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구체적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과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지역별 여건과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과제도 모색했다.

주제발표는 한지혜 서울연구원 박사와 서정현 산업연구원 박사가 각각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통합특별시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목포대, 순천대, 지역연구원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균형발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두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안 검토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석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분권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은 27개 시군구가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조화롭게 성장할 때 완성된다"며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편성에도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제도적 장치"라며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관련 조례안 검토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별 영향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7개 시군구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3공장, 지역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지역내 취약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은 기아 오토랜드광주 3공장 임직원 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광주 서구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취약가정이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김장김치 나눔행사에서는 이재석 기아 오토랜드광주 3공장장이 노진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에게 총 4백만원의 김장 비용을 후원했다. 이어 이재석 광주 3공장장을 비롯한 3공장 임직원, 광주 서구 가족센터 관계자들은 서구 지역내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금을 통해 담가진 김치는 광주 서구 지역내 다문화가정 및 취약가정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지역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기업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광주 3공장 임직원들은 2024년부터 광주 서구 가족센터와 3년째 지역 나눔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에 후원금과 장난감 나눔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갔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온정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김장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포장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성껏 담근 김치는 겨울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에 전달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구 가족센터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과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